

과학환상중편소설들의 주제의 특성에 대한 리해

강은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문학은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내세우고 그것을 사람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해결하여야 인간학으로서의 가치를 가진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6권 100페이지)

우리 나라에서 과학환상소설은 주체문학예술의 대전성기를 맞이한 시기에 새로운 발전을 이룩하였다.

물론 1950년대 후반기부터 학생들의 교육교양에 이바지하는 좋은 작품들인 아동환상중편소설 《8호해구》, 《소행성에서 있는 사건》, 《비밀의 영사막》 등이 창작되었으나 이러한 작품들은 아동문학의 제한된 영역만을 취급한 소설들이었다.

우리 나라에서 과학환상소설의 새로운 발전은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다고 볼수 있다.

과학환상소설문학발전에 기여한 장편과학환상소설들인 《탄생》, 《광명의 별》은 심오한 인간학적문제를 구현한 성과작이다. 소설들에서는 구성의 폭과 립체성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 예술적형상기교를 높이였다.

이 시기에 과학환상단편소설들도 자기의 모습을 새롭게 드러내였다.

과학환상장편소설이나 과학환상단편소설에 비해볼 때 과학환상중편소설들이 량적으로 많이 창작되었는데 이것은 해방후 중편소설이 이룩한 새로운 성과로 된다.

과학환상중편소설 《새별은석탑사대》, 《푸른 이삭》, 《두개의 화살》, 《8호해구》, 《〈天-1〉축매의 비밀》, 《별은 돌아오리라》, 《로보트 〈승리〉호》 등은 이 시기에 창작된 대표적인 과학환상중편소설들이며 우리 나라 과학환상소설의 발전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들이라고 할수 있다.

과학환상중편소설들의 주제의 특성은 무엇보다먼저 인간학으로서의 소설문학의 본성에 맞게 시대의 본질이 담겨진 인간문제를 제기하고 해명한것이다.

일반소설들이 이미 지나간 력사적사실이나 진행되는 사건들을 소재로 취한다면 과학환상소설은 앞으로 창조하게 될 과학의 세계와 생활을 보여주는것이 특징적이다.

물론 일반소설작품에서도 앞으로 있게 될 생활을 환상적으로 그릴수 있다. 그러나 과학환상소설은 환상의 세계속에서 진행되는 사람들의 생활과 과학적문제를 사건선으로 하여 그려나간다는 측면에서 자기의 특성이 있다.

미래의 인간과 그 생활을 그리는 과학환상소설 역시 문학작품으로서 절실하고 의의있는 사회적문제, 시대의 본질이 담겨진 인간문제를 구현하는것이 필수적이다.

과학환상소설이 아무리 과학적문제를 다룬다고 하여도 어디까지나 그것은 작품에 반영되는 사건선이며 작품에서 기본은 과학적문제를 둘러싸고 맺어지는 인간과 그 생활이다.

과학환상문학이 인민대중을 자주성을 위한 투쟁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데서 사람들에게 미래생활의 아름다운 외형만이 아니라 그 생활의 본질을 탐구하여 보여주는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자면 과학환상소설에서도 자주성에 대한 문제, 자주적인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해명하여야 한다.

과학환상중편소설들인 《로보트 〈승리〉호》, 《〈天-1〉축매의 비밀》, 《두개의 화살》, 《별

은 돌아오리라》 등은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제기하고 해명한 성과작들이다. 이 소설들은 온갖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며 참된 과학자의 량심과 숭고한 애국심을 바쳐가는 미래의 과학자들의 생활의 본질을 깊이 파고들어 절실하고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해명하였다.

과학환상중편소설 《푸른 이삭》에서는 미래의 과학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주인공의 형상을 통하여 진정한 과학자는 과학적리상을 꽃피우는 길에서 언제나 희생적이어야 한다는 사상을 보여주었다.

소설에서는 주인공 정광원의 형상을 통하여 과학자의 참다운 영예와 보람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은 인민들의 기쁨과 행복속에 있다는 해답을 주고있다.

정광원은 동창인 진오석의 연구논문성공을 위하여 자기의 논문을 포기하고 적극 방조해주며 그가 첫 실패에 낙심하여 연구를 포기하였을 때에는 주저없이 말아나서 밀고나간다. 이미 연구를 포기한 오석이는 자기의 리기심으로부터 그의 연구에 각방으로 제동을 걸며 연구소안에서도 반대와 시비가 더 많이 제기된다. 더구나 그가 친구의 연구성과를 가로채려 한다니, 오석의 애인을 쟁취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행동한다니 하는 모욕적인 말들이 들려오기까지 한다.

하지만 광원은 남들이 뭐라든 이 사업은 누구든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이며 바다밑에서의 항암성벼재배를 성공시킬수 있다는 과학적타산과 굳센 의지를 가지고 완강하게 연구사업을 밀고나간다. 광원은 과학자는 조국을 위해 자기를 바칠줄 아는 희생정신을 지닐 때에만 인민을 위하여 참답게 이바지하는 사람으로 될수 있다는 의지를 꺾지 않고 탐구의 길을 주저없이 헤쳐나간다. 그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직접 탐사선을 몰고 용암속을 질주하기도 한다.

광원의 이런 깨끗한 량심, 불타는 탐구심이 있음으로 하여 드넓은 서해바다에서 푸른 이삭이 설레이게 되는것이다.

소설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칠 각오가 되어있지 않는 사람은 과학자로서의 참된 영예와 보람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는것을 바다밑벼재배라는 환상적이야기를 통하여 잘 보여주었다.

과학환상중편소설 《로보트 〈승리〉호》에서는 사람을 대신하는 로보트를 만들어내는 이야기를 취급하면서 로보트를 만든 다음 과학자들이 할 일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제시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될 때까지 과학자들이 언제나 쉬임없이 전진하여야 한다는 사상을 보여주었다.

작품은 인간의 뇌수를 모방하여 최신형지능로보트를 만들어내는 이야기를 담고있다. 작품에서는 발전된 과학기술에 의하여 안락한 생활을 누린다고 하여 여기에 만족할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될 때까지 과학탐구의 길을 다그쳐나가야 한다는것, 인민들의 복리를 위하여 쓰이는 과학기술만이 진정한것이라는것 등 여러가지 주제적내용들을 밝히고있다.

작품의 중심에는 로보트설계가 청송이 서있다.

그는 《어떻게 할것인가?》라는 물음에 대답을 주어야 하는 지능로보트를 만들어낼 희망과 포부를 안고 밤낮이 따로없이 탐구와 사색으로 시간을 이어가는 과학자이다. 그에게 참된 과학자로서의 대를 세워준것은 잊을수 없는 스승인 리지민교수였다.

청송은 자기의 선배였고 스승이었던 교수가 뜻밖의 사고로 사망하였을 때에도, 지능

로봇안이 부결되었을 때에도 과학자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자각하며 힘과 의지를 가다듬어 다시금 분발한다. 그의 친구인 창해와 누이동생은 많은 사람들이 근심걱정없이 잘사는 세상에서 무엇때문에 골이 아프게 연구사업을 하겠는가하고 하면서 청송의 고상한 정신세계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주인공은 모든 난관을 물리치고 발전된 생물공학에 의거하여 기어이 생체인공뇌수를 만들어내며 모호법의 원리를 응용한 지성로봇 《승리》호를 세상에 내놓는다.

소설은 인간에 대한 자연적인 구속이 없어지고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그날까지 과학탐구의 길을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는것을 강조하고있다.

과학환상중편소설에서는 이밖에도 과학기술의 사명에 관한 문제 다시말하여 과학기술은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만 리용되어야 한다는것을 《기술과피단》악당들과의 대결과정을 통하여 보여주고있다.

과학환상중편소설들의 주제의 특성은 다음으로 소설에 펼쳐지고있는 환상분야가 매우 다양한것이다.

과학환상중편소설은 에네르기공학분야와 화학 및 생물공학분야, 로봇공학분야에 대한 환상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그 내용이 매우 다양하다.

에네르기공학분야에서 수소에네르기의 리용과 관련하여 과학환상중편소설 《〈天-1〉축매의 비밀》이 창작되었으며 과학환상중편소설 《로봇 〈승리〉호》에서는 미래의 지능로봇들이 등장한다. 과학환상중편소설 《새별은석탑사대》는 우주를 개척해나가는 과학연구활동을 깊이 탐구하여 의의있는 주제를 해결하였다. 소설에서는 우주정복에서 완강성과 대담성, 의지를 발휘할데 대한 문제, 우주기술분야에서 새것과 낡은것과의 투쟁, 우주기술의 평화적리용문제 등 절실한 중요문제들이 취급되고있다.

화학 및 생물공학분야를 반영한 과학환상중편소설들에서는 분자공학, 유전자공학, 뇌파조종과 같은 최첨단기술분야의 환상세계를 펼쳐보이였다.

여기서 대표작들은 과학환상중편소설 《로봇 〈승리〉호》, 《푸른 이삭》을 들수 있다.

과학환상중편소설 《푸른 이삭》은 바다밑에서 항암성벼를 재배할데 대한 환상을 제기하였다.

소설은 바다밑에 항암성벼재배에 필요한 필수성분들이 다량 매장되어있다는 과학적 결론으로부터 인공태양등에 의한 조명으로 바다밑에서의 농사를 발전시키는 이야기를 환상적으로 펼쳐보였다. 소설은 주인공이 겹쌍이는 난관과 시련을 강의한 의지로 이겨내면서 바다밑을 룡기시켜 농경지로 개간하고 항암성벼종자를 연구하여 바다밑에서의 벼농사를 성공시키는 이야기로 되어있다.

과학환상중편소설들에서는 여러 분야의 환상들을 제기하였는데 로봇공학의 미래와 관련된 환상들은 대체로 생물공학 및 정보기술발전에 토대하고있다.

작품들에 등장하는 로봇들은 모두가 최신형의 지능로봇들이다.

이러한 로봇들은 생물공학의 발전성과와 밀접히 련관되어있다. 이것은 현대로봇공학의 발전추세를 민감하게 반영한 과학적환상의 결과물들이다.

대표적작품으로서 과학환상중편소설 《로봇 〈승리〉호》는 최신형지능로봇을 만들어내는 이야기이다.

로봇공학과 관련한 과학환상소설작품들은 과학환상적내용들을 다른 어느 분야에

대한 작품보다 더 뚜렷이, 예리하고 심오하게 밝힐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있다.

과학환상중편소설 《로봇 〈승리〉호》는 이러한 측면에서도 자기의 성과가 뚜렷한 작품이라고 할수 있다.

과학환상중편소설문학은 다양한 환상의 영역속에서 이야기를 펼치면서도 미래의 과학자들의 생활과 과학발전모습을 진실하고 생동하게 보여준것으로 하여 그 의의가 크다.

이와 같이 과학환상중편소설들은 특색있는 과학환상적내용들을 취급하면서도 의의있는 인간문제, 사회적문제를 제기하고 해명하는데서 귀중한 성과를 거두었다.

모든 작가들은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청년들과 학생들, 어린이들이 환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칠수 있는 훌륭한 환상소설들을 더 많이 창작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할것이다.